

학원강의 활용법

강사가 전하는 수험생활

남슬잎 변리사

1. 들어가며

많이 돌아왔습니다. 항상 빠르게 붙는 방법을 고민해왔지만, 돌이켜 보면 수험생이 갖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좁은 시야 속에서 헤매왔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수험생분들이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조금이나마 시간을 단축하시길 바랍니다.

2. 1차시험

가. 진입 시기

변리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면, 누구나 진입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리사 공부는 생활방식 및 공부방법 등 여러 환경적인 면에서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겪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보다 넉넉하게 기간을 잡기를 추천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기본강의를 들어야 하는 과목수 x 한 달]**로 계산하여 진입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차시험 전 마지막 3달은 객관식 회독을 해야하는 시기이므로 제외하고, 민법, 특허, 상표, 디보에 더해 과학 4과목의 기본강의를 모두 수강하는 경우 8개월을 더하여 최소 전년도 4월에는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과학 과목에 자신이 있어 한 과목만 기본강의를 듣겠다 하는 사람은 1학기가 끝난 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1차시험은 기본적으로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우며, 그 후의 공부는 점수 향상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절히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만 폭발적으로 공부하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강의를 듣는 것이 좋을지, 문제집은 무엇을 봐야할지 등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쏟았는데, 이는 주변에 적절한 조언자가 있는 경우 모두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래에 있는 과목별 공부방법에서, 각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참고하여 모두 저와 같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 1차시험은 객관식 시험

기본적으로 객관식 시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기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만 있으면 되고, 설사 모르는 보기가 있더라도 다른 보기를 통해 옳고 그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자연과학, 디자인보호법(다른 선택과목인 경우)은 2차시험에 필요없는 과목이므로 1차시험 통과에만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1차시험이야말로 말로 요령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여야 합니다.

법 과목을 예로 들면, 한 문제당 5개의 보기가 있고 40문제가 출제되므로, 약 200개의 보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체감상 약 180개에서 190개의 보기는 이미 기출된 문항과 유사하여, **기출 문제의 회독을 통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생소한 보기는 최신 판례나 기출되지 않은 조문에서 새롭게 만든 문장인데, 이 부분은 시험 막판에 듣는 최신판례 강의나 법조문을 꾸준히 읽는 습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격컷트가 75점 내외에서 형성되므로 설사 기출 문제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을 모두 틀렸더라도, 법과목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어서 합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완벽하게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법과목의 방대한 양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빠른 회독을 통해 최대한 기억을 살려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빠른 회독을 위해선 최대한 보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완벽주의를 버려야 1차시험을 빠른 시일 내에 붙을 수 있습니다.

다. 민법(90점, 87.5점)

1) 개요

민법은 양이 너무 방대하여 처음 공부할 때 수험생에게 제일 큰 부담을 주는 과목입니다. 총칙 부분의 강의를 듣고 물건만 넘어가도 총칙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공부할 때 암기는 신경쓰지 말고, 강사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지에 중점을 둘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는 한도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회독**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한 달은 민법에만 집중하길 추천합니다. 높은 확률로, 일회독이 끝난 후에도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가득할 것입니다. 한 달의 시간이 어디로 증발되었나 하는 의문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요약서를 펼쳐서 복습과 함께 곧바로 진도에 맞춰서 변리사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론적 내용만 복습하다 보면 긴장감이 없어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1차시험의 본질은 객관식 시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시험 기출문제(노무사, 변호사 등)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변리사 시험 기출만 풀어도 합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내용의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소수의 경우에는 대학교까지)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온 공부습관과 배치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법 관련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렇게 내용 복습 및 변리사 기출 문제(약 12개년 기출 500문제)를 풀고 나면, 한달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과목들과 병행하며 꾸준히 회독수를 늘려주면 됩니다**. 기본서 회독 및 기출문제 외에 더 추가해야 할 것은 **최신판례**입니다. 그리고 변리사 기출문제를 5번 이상 회독하여 모든 답이 눈에 보이는 경우에는, 변호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혹시나 시간이 남는 경우에는, 두꺼운 객관식 문제집을 하나 사서 빠른 속도로 풀면서 틀린 부분을 체크해도 좋을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변리사 기출 문제로 85점 이상은 충분히 득점할 수 있으니, 너무 많은 시간을 민법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주의점

내용 복습과 문제풀이를 통해 민법이 익숙해지면, 수험생은 민법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완벽하게 알기 위해 각 판례 간 논리적 일관성을 찾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판례를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단언컨대, 그 시간에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합격에 더 도움이 됩니다. 민법에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판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판례는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해석과 다르게 판시된 것도 많으므로, 예외적 판례로서 암기만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도 모든 판례를 이해하려고 시간을 많이 소비했으나 득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3) 교재

시중에 있는 기본서는 모두 괜찮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고르면 됩니다. 오랜 시간 반복하여 보아야 하는 교재이므로, 본인에게 가독성이 좋은 교재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페이지수가 약간 많더라도 가독성이 좋은 교재가 저에게 맞아서, 동차 때는 오양균 저서를 보고 3시 때는 **김동진 저서**를 보았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동차 때는 변리사 외의 기출문제도 수록되어 있는 두꺼운 객관식 문제집을 보았으나, 3시 때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변리사 기출문제 및 판례만 나와있는 **객관식 문제집(김동진 저)**를 보았습니다.

라.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하 '산재법') (95점, 87.5점)

1) 개요

실체법인 민법과 달리 산재법은 절차법과 실체법이 혼합되어 있어서 처음에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절차법적 요소가 많아 민법보다 **법조문의 중요도가 매우 커서**, 법조문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득점하기 쉬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법조문 암기 시간을 따로 갖길 추천합니다. 저는 법조문 암기 스티디를 따로 하였는데, 각 조문에 빈칸을 만들어서 빈칸을 채우는 것으로 연습하였습니다. 정밀한 암기에 도움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수에 비해 유독 각 산재법의 객관식 문제집의 양이 방대하여, 과연 이 많은 양을 풀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출문제 15개년 정도 풀고 최신판례 및 법조문만 꼼꼼하게 외우면 고득점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에 여유가 있는 수험생은 차분하게 객관식 문제집을 모두 푸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방대한 양이지만 모두 법조문을 기초로 만들어진 문제이므로 법조문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출문제 외의 문제들은 법조문을 더 꼼꼼하게 외우기 위해서 푸는 것이므로, 각자 주어진 시간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특허법 하나에 민법에 버금가는 시간투자가 될 것이니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저는 동차 때는 이지 객관식 문제집을 풀었으나, 3시 때는 법조문 외우기에 주력하면서 진도별 학습문제집(김현호 저) 및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것만으로 특허법은 다 맞을 수 있었습니다. 상표법은 판례 위주로 법리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기출문제와 법조문에 집중하면서 다른 문제를 풀기보다는 판례집을 한 번 더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기출문제와 법조문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시간을 쏟지 않길 권합니다.

2) 주의점 및 교재

특허법, 상표법의 경우 2차 시험에서 연속적으로 필요한 과목이어서, 일부 수험생은 처음부터 2차용 요약서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2차용 기본서는 법조문을 시험 도중에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쓰여진 것이므로, 꼼꼼한 법조문 암기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1차시험에는 부적절합니다. 저는 모든 내용이 표로 간결하게 기재된 도해 시리즈를 보았습니다. 1차시험 고득점에는 이것

으로도 충분하고, 여유가 있어서 2차시험을 좀 더 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판결이유까지 나와 있는 판례집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차시험은 판결요지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판결이유까지 보게 되면 정확한 사실관계 및 논리를 알 수 있어서 판례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시험 뿐만 아니라 1차시험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객관식 문제집을 5회 이상 회독한 경우에만 권합니다.

마. 자연과학(62.5점, 75점)

1) 개요

기본적으로 네 과목을 전부 7문제 이상 맞힐 생각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1차공부 중 시간이 부족한 경우 자연과학을 우선적으로 제외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법과목의 객관식 문제집을 버리고 변리사 기출문제만 풀면서, 자연과학은 계속하여 공부하는 것이 합격확률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은 매년 각 과목별 난이도가 천차만별이라, 어렵게 나오는 경우 전공자라 할지라도 다 풀 수 없을 정도로 나오고, 쉽게 나오는 경우 중학생이라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옵니다. 따라서 모든 과목을 준비하여 쉽게 나온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고 어렵게 나온 과목에서 최대한 선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순발력과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적게 걸리는 과목부터 시작하되, 조금만 시간이 지체된다 싶으면 바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여야 합니다. 저는 지구과학 - 생물 - 물리 - 화학 순(계산과정이 적은 과목부터 많은 과목 순서)으로 풀고, 중간에 조금이라도 손이 멈추는 경우에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가, 마지막 과목까지 다 푼 다음에 못 푼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나오더라도 일정 수준이상의 득점을 할 수 있는 관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물에 자신이 없었는데 자연과학에 시간을 투자하기 싫어서 초시 때는 50페이지 가량의 생물 최종정리강의 자료만으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한 과목을 어느 정도 포기한 셈입니다. 운 좋게도 생물에서 찍은 부분이 다수 맞아서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으나, 순전히 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시 때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생물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 법 과목보다 자연과학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훨씬 안정적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 주의점

내용적인 부족함으로 인해 peet 문제 등을 푸는 수험생이 종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험시간이 짧은 대신 평이한 문제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맞힐 수 있는 문제만 모두 맞으면 70점 이상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맞히려는 생각보다는 그 시간에 시간을 촉박하게 설정하여 당황하지 않고 찍더라도 모든 문제에 답을 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강의

자연과학은 수험생마다 실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본인이 취약한 과목만 기본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지구과학과 생물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 책으로도 이해가 충분한 경우, 책으로 지식을 습득한 뒤 바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험 막판에 개설되는 최종정리 강의는 효율적으로 빠르게 일회독할 수 있으므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화학, 생물, 지구과학 최종정리를 들으면서 내용정리에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3. 2차시험

가. 2차시험 답안지 어떻게 써야 할까(답안지학)

다년간의 수험생활 동안, 법과목에서 고득점한 친구들 답안지를 많이 보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강을 통해 교수님의 채점을 받아보고 교수님과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내린 저의 결론은 **2차시험 답안지란 '형식' 을 통해 완성되는 '논리적 글쓰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논리는 '흐름' 이 있어야 하고 흐름은 '목차' 를 통해 완성됩니다. 다수의 수험생들은 글의 형식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외운 내용을 흐름없이 서술하여 결론을 내기에 급급합니다. 가끔 형식이 없어도 술술 읽히는 글을 유려하게 잘 쓰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냥 태생적으로 글을 잘 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대생은 그렇지 않으니 훈련을 통해 형식을 습득하고 그 안을 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도 기득 때까지는 답만 맞으면 된다는 생각에 형식적인 면은 많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회로)가 너무 어려워 아깝게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교수님 및 전년도 수석의 조언에 따라, 글의 전체적인 형식을 신경썼습니다. 그러자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는 느낌을 주어 글의 퀄리티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어딜 가도 '깔끔하게 잘 쓴 답안' 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채점하시는 학교 특강의 모든 시험에서 안정적으로 100명 중 10등 내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GS 등수는 딱히 오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판례나 조문 한 문장에 대한 포인트로 채점하는 GS 채점스타일과 전체적인 논리적 흐름을 보고 통으로 점수를 매기는 교수님의 채점스타일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의 포섭을 생각 이상으로 꼼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설로 비유하자면, 문제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적 이슈(의의, 취지, 판례) 등은 복선이고 사안의 포섭은 갈아둔 복선을 모두 회수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문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안의 포섭(소결론) 부분이 답안지에서 최소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답안이 이상적인 답안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시험에서도 그렇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은 모두 같은 형식을 차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법이 다르다 해서 논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문제의 소재(논점의 정리)' 부분은 특점에 들어가지 않아서 생략하곤 합니다. 특허와 상표의 경우 점수가 없는 것은 맞으나(교수님 피셜), 형식적(혹은 논리적)인 면에서 교수님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심적인 추가 점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6점 이상의 배점의 경우 항상 문제의 소재를 썼습니다. 경험상 10점짜리 문제의 경우, 논점만 다 맞는 경우 5점, 어느 정도 흐름이 존재하고 사안의 포섭을 꼼꼼히 쓴 경우 6점, 형식을 갖추어 각 목차가 유려하게 연결되는 경우 7점, 완벽한 답안지에 남들과 차별점까지 있는 경우 7.5점에서 8점까지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교수님들은 답을 꼼꼼하게 보지 않으므로, 형식이 갖추어진 경우 잘 썼겠거니 하는 인상을 주어 내용이 다소 틀리더라도 5점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 특허법(54점)

1) 개요

수험기간 내내 저를 괴롭혔던 과목입니다. 3시 때까지 어떻게 써야할지 스스로의 기준도 제대로 없이 시중의 서브집 및 GS를 외우는데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학설을 써야할지, 판례와 검토는 어떻게 써야할지, 판례 문구의 일부를 검토로 쓰는데 맞는건지, 특허법원 판례는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지 등 저만의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기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GS와 실제 시험 간의 갭이 너무 커서 GS를 풀면서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문제도 매해 예측할 수 없는 논점(FRAND, 부분우선권제도, 우선심사신청, 국제적 소진이론 등) 및 문제 구성이 출제되었고, 항상 시험장에서 당황했었습니다. 점수도 항상 2~300등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4시를 시작하면서, 시중의 서브집을 보지 않고 교수님들의 저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조영선 교수님의 특허법 2.0이 쉬운 문체로 특허법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도록 쓰여져 있어서 3회독 정도 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관련 논점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문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서 특허법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특허법 답안지 기재 방식

여러 책, 여러 교수님, 그리고 고득점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저만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특허법도 똑같은 법이므로, 민사소송법과 같은 형식을 취하여 논리성을 강조한다. 목차로서 논리적 흐름을 보여준다.
- ii) 판례는 대법원 판례에 중점을 두고, 판례의 원문을 읽어서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다. 특허법원 판례는 정말 중요한 이슈가 아닌 이상 외울 필요가 없다.
- iii) 관련 논점에서 핵심이 되는 대법원 판례 문구 3줄에서 4줄은 정확히 암기해서 눈에 띄도록 쓴다. 다만, 판결요지만 맞으면 생각 이상으로 점수 차이는 나지 않는다.
- iv) 학설은 판례와 대립 되는 경우에만 소개형식으로 간략히 적는다. 그리고, 학설의 대립이 있지 않은 이상 검토는 특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판례를 길게 쓰나, 판례를 분할하여 판례와 검토로 쓰나 점수는 다르지 않다. 교수님들도 다 판례인 것을 알고 계신다. 자신만의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본인이 해당 논점에서 고민했던 흔적을 보여 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 점수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논점을 그렇게 준비할 수는 없으므로 판례의 요건들을 정확하게 사안포섭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 v) 사안의 포섭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교수님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법조문 및 판례를 주어진 상황에서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사안의 포섭에 지면을 더 할애하여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쓴다. 거의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답지에 한 번씩 기재한다는 생각으로 자세하게 쓴다.

위와 같은 기준을 세우고 특허법 답안을 작성하니, 올해 열린 4번의 특강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았고 교수님께 잘 쓰는 답안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특허법 점수도 고득점(54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교재

수험기간이 긴 만큼 각주특허법, 이음특허법, 타학원 특허법 교재 등 매년 특허법 교재를 달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조금씩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교재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시가 되서 교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시간을 투자하여 다양하게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영선 교수님의 특허법 2.0을 기초로 박형준 변리사님의 준특허를 보았습니다. 준특허는 사실 가독성이 좋은 편은 아니고 수험생이 부담 느낄 정도의 많은 내용(학설, 독점규제법 등)들이 수록되어 있으나, 본인이 강약조절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교재라 생각합니다. 저도 학설 부분은 참고만 하고 암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규호 교수님의 특허법 사례해설은 몇 년 전 책이지만, 중요 대법원 판례 원문이 수록되어 있어서 종종 시간날 때 읽었습니다.

4) GS

대부분의 GS를 구해서 논점과 판례만 확인하였습니다. 4시 기간에 전체 답안을 시간 재서 풀어본 것은 phj, pjh 변리사님의 GS뿐이었습니다. 두 분 GS 모두 최신 판례를 익히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험기간이 길어서 다른 변리사님 GS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풀었으나, 수험생 분들은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푸는 GS는 논점이라도 알고 있기를 추천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듣는 GS 문제는 동차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난이도가 중하 정도로 맞춰서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 판례를 파악하고 기본기를 쌓기에 적절하

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다수가 GS점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대형 강의에서 1등을 한 적은 있으나, 평균적으로는 중상 위권이었습니다. 저의 답안을 관찰하면서 GS 문제의 분량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방식에 확신이 있었기에 등수에 연연해 하지 않고, 최신 판례나 이론적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채점방식 상 한계가 있으므로, 수험생분들도 GS 등수에 너무 신경 쓰지 않길 바랍니다.

5) 논문

공부를 일정 시간 이상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문에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저도 중요한 판례나, 아직 명확하게 기준이 없는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경우 논문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출제 교수님들이 쓴 논문을 5개년 정도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력이 쌓이기보다는 자기만족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논문 찾을 시간에 쉬운 문제를 더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쓰는 연습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다) 민사소송법(64점)

1) 개요

법과목 중 가장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노력과 점수가 어느정도 비례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시중의 GS 문제와 사례집을 열심히 풀면 큰 이변 없는 한 60점 이상은 획득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은 과목 자체로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해서인지 교수님들이 대체로 후하게 채점해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종종 아예 다른 논점을 적거나, 답을 틀렸다고 생각한 경우에도 점수가 일정 이상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답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논리적인 전개가 중요시 여기는 듯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모든 논점을 썼다고 해서 점수가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종종 논점을 다 썼는데 60점이 안 나왔다고 말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본인이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전개가 논리적인지 스스로 체크해보길 권합니다.

저는 공부할 때, 각각의 논점에 대하여 미리 목차들을 생각하고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끊임없이 검토하였습니다. 하나의 사례집 목차를 따르지 않고, 제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목차를 스스로 조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사소송법 자체의 이해뿐만 아니라 논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2) 교재

수험생 대다수가 보는 교재는 너무 방대하여 시험 직전 도저히 일회독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브집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통합 민사소송법(이창한 저)**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삼시, 사시를 거치면서 신민사소송법(이시윤 저), 민사소송법강의(박재완 저)를 기초로 여러 사례집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특히 박재완 교수님의 책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쓰여있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에 대한 판례 및 내용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단순 암기에 지친 수험생들은 한 번쯤 읽어보길 권합니다.

단순한 단권화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틀을 세워서 새로운 책을 쓰는 것은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만드는 과정 자체가 초조하며,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수험생활이 길어지면서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고자 했던 것이고, 기득 이하의 수험생 분들은 시중 교재를 반복 숙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GS

시중에 나와 있는 GS는 대부분 보았습니다. 다만, 반 정도는 답안을 쓰지 않고 논점 및 목차만 체크한 뒤 답을 보았습니다. 저만의 쓰는 형식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답안을 쓰고 다른 강사의 답안과 비교하는 것이 실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창한 교수님 강의를 기본**으로, **김남훈 변호사님**, cyd 교수님 강의와 같이 소수가 듣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피드백받기에 용이하고 색다른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시간 동안 쓰면서 시간 관리하고 분량 조절하는 연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시간 및 분량에 대한 감을 익히고 나면, 그 시간에 내용을 암기하고 목차를 고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주말에 학원에서 GS 쓰는 것 외에 주중에는 평균 두 번 정도만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강사 답안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항상 더 들어갈 내용은 없는지, 흐름상 필요없는 내용을 무엇일지 스스로 고민하고 주변 수험생들과 토의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라. 상표법(49점)

1) 개요

처음 2차시험 답안을 작성할 때 접근하기 가장 용이한 과목입니다. 주로 법리가 판례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유사 판단, 침해여부 판단, 무효, 취소소판청구 등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나와서 연습하기도 매우 용이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안 포섭을 어떻게 하느냐에 고득점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언젠가 한 교수님이 '상표법은 사안포섭이 70%가 되어야 한다' 라는 글을 보고, 그 후로 저는 사안포섭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항상 답안의 반 정도는 사안포섭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판례를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판례나 기본 법리의 양을 줄이고 사안포섭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정말 과하다 생각할 정도로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목차는 다른 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목차가 최대 5개 이상을 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동차 때부터 4시까지(0점을 받은 3시를 제외하고), 상표법은 많이 공부하지 않고도 실제 시험에서 항상 200등 안에 들었고, 특강에서도 항상 100명 중 10등 내외였어서 제 방식에 확신을 갖고 공부했습니다.

판례집을 볼 때 법리가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체크하면서, 나는 목차를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면서 보았습니다. 상표는 다른 법에 비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판례 공부를 통해 실력을 잘 쌓을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2) 교재

3시까지 길상표법으로 보다가 4시 때는 테마상표법을 보았습니다. 상표는 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으므로 본인에게 가독성이 좋은 것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윤선희 교수님의 상표법 책도 샀으나, 학원 교재에 비해 딱히 좋은 점이나 다른 점을 느낄 수 없어서 일부만 보고 보지 않았습니다. 헛갈리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직상표법을 참고하였습니다. 판례집 역시 어느 강사님의 판례집을 보아도 대동소이합니다.

3) GS

4시 때는 jjg, cjh 변리사님의 GS를 풀었습니다. 매년 상표법은 딱 강사 두 분의 GS만을 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새로 나오는 판례는 모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안 포섭에 지면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GS 등수가 딱히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배점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GS를 수강하면서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키워드를 정확히 외웠는가만 신경 썼습니다. 제 방식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GS 등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GS 등수와 비교하여 시험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본인의 답안작성방식을 한 번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 회로이론

1) 개요

회로이론은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이후로는 안정적인 점수 획득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다만, 선택과목이 패는 패로 바뀌면서 효율적인 공부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2017년까지는 회로 점수가 합격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저는 회로이론에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의 시간을 쏟았고, 회로 문제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난이도까지 가리지 않고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50점만 넘으면 되는 최근의 추세와 맞지 않으며, 난이도 역시 최근 2개년은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시 이후(패스 제도 도입 후)로는 이종훈 변리사님의 태인회로이론1 및 테마회로이론 정도의 문제만 풀었고, 1회독이 채 되지 않은 채 시험장에 들어갔으나, 고득점을 받는데 문제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로를 시작하는 수험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쓰는 것 보다,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맞혀서 패스 기준만 넘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할 것을 추천합니다.

2) 계산기

회로이론에 있어서 처음이자 끝은 계산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준 변리사님의 계산기 강의를 통해 여러 함수들을 숙지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하길 추천합니다. 저는 7개의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3) 교재

기본교재는 타학원강사의 기본서를 토대로, 태인회로이론, 테마회로이론을 반복하여 풀었습니다. 기득시기(17년)까지는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반효동 변리사님의 GS도 풀었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현재는 필수적인 문제만 풀면 되므로 개인적으로는 테마회로이론을 추천합니다. 적절한 난이도에 개념 숙지에 필요한 문제는 모두 들어있어서 좋은 문제집이라 생각합니다. 테마회로이론만 반복하여 4~5회독 정도 하게 된다면 60점 이상은 안정적으로 획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GS

많이 풀 수록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으나, 시험 제도를 생각하여 효율적으로 할 것을 추천합니다. 저 역시 기득때까지는 모든 강사의 3년 치의 GS를 구해서 풀었으나, 3시 이후로는 시간 관리 겸 해서 스티디로 한 두개만 풀어보았습니다. 책에 있는 문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4. 기타

가. 수험생활

1) 공부시간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학교에 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아침 출첵스튜디오를 하였는데, 친구들이 모두 매우 성실한 사람들이라 제가 지각비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출첵스튜디오가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순 공부시간은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였습니다. 핸드폰의 유혹에 취약한 사람이라, 아침에 학교에 갈 때는 집에 두고 다녔습니다. 시험 막판에는 저녁 먹을 때에 핸드폰을 학교에 가져가서 학교 사물함에 넣어두고, 밤에 핸드폰을 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핸드폰만 잘 관리해도 공부시간 확보 및 컨디션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건강관리

기득 이후로는 수면장애가 생겨서 잘 때 멜라토닌을 먹고 잤습니다. 현재는 수입금지품목이 되었으나, 미리 사둔 것이 있어서 4시 때까지 거의 매일 먹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효과가 좋아서 수면제까지 먹지는 않았습니니다.

영양제는 꼭 챙겨먹었습니다. 먹을 때는 체감할 수 없으나, 먹지 않을 때 피로함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종합비타민, 아르기닌, 실리마린, 홍삼은 꾸준히 먹고 가끔 마가, 타우린, 프로폴리스, 오메가3 등을 한 번씩 사서 먹었습니다. 영양제 쇼핑이 수험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3) 멘탈관리

공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짓눌려 누구나 정신이 피폐해져 갑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지금은 나만을 위한 시간이다. 그리고 가족들과 주변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있다.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나만을 위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이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라고 되뇌었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고 잡념이 없어졌습니다. 장기간 공부를 지속하려면,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 시험장 팁

1) 과목명에 이름 쓰지 말 것

1200여 명의 2차시험 지원자 중 매년 몇 명은 과목명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희귀한 케이스가 바로 3시 때의 저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상표법을 정말 깔끔하게 잘 썼고, 심지어 시간이 3분가량 남아서 앞의 문제로 넘어가 보론까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0점이 나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두 번째 답지 과목명에 제 이름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날렸습니다. 정말 당시 제 기억에는 없으나, 잘 썼다는 생각에 방심하여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수험생분들도 시험 도중 잘 썼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긴장하고 급한 경우엔 그런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은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으므로, 감독관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두 번째 답안지를 작성할 때 옆에 감독관이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몇 명씩 매년 반복되므로,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란 생각하지 마시고 두세 번 꼭 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저도 평생 그 흔한 마킹 실수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2) 문제 순서 바꿔서 풀기

이 시험은 엄밀하게 말하면 상대평가입니다. 대다수가 잘 쓴 문제를 자신도 잘 쓴 경우에는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고, 대다수가 못 쓴 문제를 자신이 어느 정도 썼다면 쓴 것 이상의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수험생은 4번을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교수님들은 의도적으로 1, 2번에 어려운 문제를 배치하여 수험생들의 시간 관리를 어렵게 합니다. 즉, 답지 기재 순서를 4-1-2-3 순서로 하여 전략적으로 일단 4번을 깔끔하게 쓰고 나머지 문제를 풀게 되면, 설사 3번 문제에서 시간이 약간 부족해 분량을 조금 줄여 썼더라도, 깎이는 정도 이상의 고득점을 4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제 경험상 총 1점에서 2점 정도의 추가 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이 전략은 빛을 발합니다. 4번을 다 푸는 사람이 현격히 줄기 때문입니다.

5. 마치며

이 시험은 계속할수록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누가 봐도 잘 하는 친구가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 압도적인 실력이라 합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운이 맞아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운이 맞는 시기까지 버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지해주시고 지원해주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드릴 뿐입니다.

먼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를 절대적으로 믿어 주시고 지원해주시느라 너무 힘드셨을 아버지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항상 아낌없이 응원해주는 누나 고마워. 그리고 서른이 다 될 때까지 사촌 동생들한테 형 노릇 못 해도 항상 지지해주시고 기도해주신 큰이모(부), 작은이모(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부한다고 얼굴 비추지 않아도, 믿고 지지해주신 친척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시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너무나 힘이 많이 됐던 원태, 용석, 건창 형, 가영, 고준 형, 상범 형, 지호 형, 희경 누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엔 될 사람이 아직 남았는데,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먼저 합격해서도 계속 응원해준 동진, 석빈, 승태, 성호, 인호, 평원, 성규 형, 기범 형, 계성 형, 지훈, 양태, 대경 고맙습니다. 차차 빛 갠아가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항상 응원해준 상운, 명수, 준현, 진현, 정호, 지훈, 성찬, 정우, 기중, 서연, 수진, 유승 형, 정수 형, 효석, 원선 형, 명환, 재용, 전전 동기들 덕분에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헤인.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평생 갠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아버지님 어머니님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고민되는 게 있다면 기탄없이 sleep91@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